

광주시사회 온 '택시운전사' 송강호

“광주 시민께 위로 드리고 싶어”

배우 류준열·유해진·장훈 감독 참석

“광주시민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 송강호는 29일 '택시운전사' 광주시사회 무대에 올라 영화의 주요 배경이자 5·18 민주화운동 역사현장에서 관객 앞에 선 심정을 이렇게 말했다.



송강호는 “작년 이맘때 광주 곳곳을 돌며 촬영했는데 마음이 작잡했다”며 “광주시민뿐 아니라 많은 분께 이 영화로 누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주연배우로서 느꼈던 부담감을 털어냈다.

그러면서 “아름과 시련을 극복했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진심 어리게 전달할까 고민했다”며 “개봉 3일을 앞두고 광주시민께 인사드려 영광스럽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역할을 맡아 함께 출연한 류준열도 “뜨거운 마음으로 찍은 영화인데 뜨거운 감동이 되기를 바란다”고 광주 관객 앞에 선 소감을 밝혔다.

광주지역 택시운전사 역할을 소화한 유해진은 “무대에 오를 때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시는데 영화를 잘 봐주신 거 같아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메가폰을 잡은 장훈 감독은 “영화 개봉 전 마지막 무대 인사인데 광주의 관객들 앞에 서니 더 떨리고 긴장된다”며 비극의 현대사를 소재로 6년 만에 신작을 발표한 심경을 전했다.

다음 달 2일 개봉하는 '택시운전사'는 이방인의 시선에서 1980년 5월 광주를 그렸다.

택시기사 만섭(송강호)이 독일 기자(토마스 크레취만)를 태우고 광주로 향하는 이야기는 지난해 타계한 '푸른 눈의 목격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5·18 취재기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힌츠페터는 독일 제1공영방송 ARD-NDR 특파원으로 5·18 참상을 현장에서 취재해 전 세계에 알렸다.

고인의 머리카락과 손톱 일부는 '광주에 묻히고 싶다'던 유지에 따라 망월동 5·18 구묘역에 안치됐다.

광주 시내 극장 7개 관에서 열린 이 날 시사회에는 5·18 유공자, 광주지역 택시운전사, 시민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뜨거운 감자 '군함도' 거침없는 흥행 질주

역사 왜곡·스크린 독과점 등 논란 속 개봉 4일만에 300만명 돌파...신기록

영화 '군함도'가 올여름 극장가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군함도'는 개봉 4일째인 29일 총 관객 3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개봉 5일째 300만명을 넘어섰던 '스파이더맨: 홈커밍'보다 하루 빠른 것으로, 올해 개봉작 중 최단 기간 300만 돌파 신기록이다.

아울러 역대 흥행 기록 1위인 '명량'(1천761만명)을 비롯해 '부산행'(1천156만명)이 보유한 역대 최단 기록인 개봉 4일째 300만 돌파와 같은 속도다.

'군함도'는 약 260억원의 제작비, 스타감독과 배우의 만남 등으로 일찌감치 천만영화 타이틀을 '예약'한 영화다. 그러나 흥행과 별개로 최근 뜻하지 않게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극장가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군함도'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역사 왜곡, 스크린 독과점, 작품성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수렴된다. 이런 논란은 대체로 관객의 기대와 영화 간 괴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군함도'는 개봉 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파야 할 비극적 역사” 등으로 군함도의 진실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춰 애국심 마케팅을 펼쳐왔다.

그러나 막상 투경을 열어보니 조선인 강제징용의 비극적 실화보다는 탈출극에 초점을 맞춘 액션 블록버스터에 가깝다는 평이 나왔다. 이 때문에 소재에 대한 관객의 기대와 마케팅, 영화 내용이 엇박자를 내면서 논란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군이 군함도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지점이다.

물론 류승완 감독은 “'군함도'는 사실에 기반한 창작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한 한을 대탈출이라는 컨셉으로 풀어보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역사 왜곡 논란도 이런 연장선에 있다. 논란은 여러



갈래다. 군함도에서 필박받은 조선인의 실상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는 고증 논란부터,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조선인을 일본인보다 더 악랄하게 그려 '친일'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장기를 찢고, 촛불을 드는 모습 등을 거론하며 '국뽕' 영화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 작품을 두고 관객의 성향과 역사인식에 따라 양극단의 평이 오가는 것이다.

류 감독은 이런 논란에 대해 “영화를 준비하는 내내 수년 동안 소품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고증을 받았다”면서 “집단탈출조차도 군사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사실에 가깝게 재현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제국주의에 편승한 친일파의 존재는 사실이며, 역사적 청산이 이뤄질 때까지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스크린 독과점 논란도 피하지 못했다. '군함도'는 개봉일인 지난 26일 하루 만에 97만 516명을 동원하며 역대 최다 오프닝 기록을 세웠다. 이는 지금껏 가장 많은 총 2천27개 스크린에서 1만174회 상영된 결과다. 주말에도 1천900여 개의 스크린을 유지하며 주요 상영 시간을 장악하고 있다.

사실 스크린 독과점은 '군함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바로 직전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도 최다 1천965개 스크린에서 상영됐고, 상영점유율은 63%에 달했다.

그런데도 '군함도'가 유독 비판을 받는 것은 배급과 상영을 겸영해온 CJ E&M의 그간 행태에 대한 반감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영화의 메시지와 연결해 비판하기도 한다. 관객들이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스크린을 독점하는 행태가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려는 '군함도'의 주제 의식과 상충한다는 시각이다.

작품성에 대해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군함도의 거대한 세트, 압도적인 스펙터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단선적인 스토리와 평면적인 캐릭터, 억지 감동을 유발하려는 장면 때문에 류 감독 특유의 개성 있는 영화를 기대했던 관객들은 다소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군함도'는 여러 논란을 제압하고 대중들을 압도하는 힘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프로덕션의 완성도는 전 연령대 관객의 관심사는 아니어서 내러티브에 강력한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잘 만든 영화라는 평가도 많다. 정지숙 영화평론가는 “'군함도'는 길게 가도 충분히 관객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던져주면서 소통할 수 있는 상업 영화”라면서 “지금처럼 스크린을 무리하게 많이 가져가지 않아도 충분히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화계 관계자는 “흥행 여부와 별개로 앞으로 역사적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할 때 이번 논란을 타산지식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걸그룹 소녀시대, 10주년 맞아 8월 7일 컴백

팬미팅서 신곡 '홀리데이 나이트' 공개

걸그룹 소녀시대가 데뷔 10주년 기념 팬미팅에서 정규 6집 '홀리데이 나이트'(Holiday Night)의 신곡 무대를 처음 공개한다.

30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소녀시대는

데뷔 기념일인 8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10주년 팬미팅 '홀리데이 투 리멤버'(Holiday to Remember)를 열고 정규 6집의 더블 타이틀곡 '올라이트'(All Night)와 '홀리데이'(Holiday) 등을 선보인다.

이날 소녀시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멤버 효연의 새로운 모습을 담은 티저 이미지와 인터뷰 영상을 공개

했다. 또 신곡 중 부드러운 멜로디가 돋보이는 미디엄 템포의 팝 발라드 '원 라스트 타임'(One Last Time)의 일부도 선보였다.

6집 전곡은 8월 4일 오후 6시 음원사이트에 공개되며 앨범은 8월 7일 오프라인에 출시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스페셜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00 2017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경기 <샌프란시스코 : LA다저스>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방송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재) 50 숨터(재)	00 살림하는남자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학교 2017(재)	00 MBC 정오 뉴스 20 문화사색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특 Talk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를 행복아카데미(재)		1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 2 55 드림 주니어 스페셜	55 닥터 365
2	50 콘서트 필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25 지오메카 55 꾸러기 식사교실	00 뉴스브리핑
3	30 공감다큐. 사람(재) 50 팔도발상 스페셜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유치원	25 별별머느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MBC 뉴스M	00 토크콘서트 화동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10 조작(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리러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우기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별별머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10	00 가요무대	00 학교 2017	00 왕은 사랑한다	00 조작
11	00 KBS 뉴스라인 40 월요기획 3부작 영상포럼. 아시아의 소리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회기 인수식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30 이웃집 철스(재)	35 비바 K리그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요술 상자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미국 자동차 횡단 7500km 1부 동부 사람이 사는 법>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부 동부 사람이 사는 법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마루의 어드벤처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가지그라탕과 채소피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문화유산 코리아 12:10 글로벌 가족특초치기 -한국에 산다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핑크 08:00 당동명 유치원 1~2 08:30 플라워링 하트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과학 다큐 비온드 (재) 13:40 엄마를 부탁해(재)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15:00 요술 상자 15:05 내 친구 아서 15:20 우주탐험자 셋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코코콩 3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두다다콩(재) 16:45 당동명 유치원 1~2(재) 17:30 플라워링 하트(재) 17:45 호기심나라 오키도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4 19: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9:30 특집 한국단편문학 애니메이션 (매미꽃 필 무렵)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20:50 세계테마기행 <언제나 영화처럼, 캄보디아 1부 그해 여름 바람> 21:30 한국기행 <열려라, 여름 1부 더위 사냥 가실래요? 열음골> 21:50 EBS 다큐 프라임 <황량의 땅 1부 인간의 땅 호랑이의 숲> 22:45 엄마를 찾지만 23:35 가칠남녀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24:30 세계의 드라마 (폴킴3)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31일(음 6월 9일 己未)

子	48년생 사실부터 파악해 두고 볼 일이다. 60년생 행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72년생 폭염 속에서 폭우가 쏟아지며 비유할 만하다. 84년생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틀림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8, 39	午	42년생 갈구해 왔던 바를 이룬다. 54년생 액면 그대로 인식해야만 명징한 관점을 확보한다. 66년생 치밀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 78년생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자. 90년생 뜻 깊은 날이다. 행운의 숫자 : 93, 03
丑	49년생 예상했던 바와 정반대로 될 수도 있다. 61년생 판시세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뿐이다. 73년생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발전된 양상으로 이끈다. 85년생 오늘의 선택을 잘 한다면 빛일기 수월해지리라. 행운의 숫자 : 80, 63	未	43년생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할 때다. 55년생 막힌 곳은 속명적으로 뚫어줘야겠다. 67년생 진정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겠다. 79년생 추진하는 것이 이롭다. 91년생 과감한 실행을 요한다. 행운의 숫자 : 01, 68
寅	50년생 지금 즉시 뜻을 펼쳐보는 것도 기대에 불만이다. 62년생 함께하는 이와와 호흡이 중요한 때이다. 74년생 의욕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겠다. 86년생 상당히 생기겠지만 거의 없어지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5, 60	申	44년생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각적으로 쉽게 현혹될 수도 있으나, 56년생 지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68년생 첫 술에 배부르랴? 80년생 사람들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2, 47
卯	51년생 행운을 이끄는 길성이 비추고 있다. 63년생 다른 일이 겹쳐서 상당히 번거로울 것이다. 75년생 너무 이반이 많아서 중흥 무진 할 수도 있다. 87년생 평상시에 안전 의식을 잊지 않아야 면역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9, 67	酉	45년생 부정적인 요소가 생기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면 그만이다. 57년생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음이 무난하다. 69년생 그나마 더운같이 할 정도는 되겠다. 81년생 분명한 기회는 주어진다 사실을 알라. 행운의 숫자 : 64, 20
辰	52년생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64년생 훨씬 진전된 하루가 될 것이다. 76년생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88년생 요점을 잘 들여다보면 답이 나온다. 행운의 숫자 : 66, 01	戌	46년생 파격적인 발전으로 인해 성과가 크겠다. 58년생 전체를 아우르면서 일일이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거의 같다. 70년생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82년생 기본에 좌우된다면 큰일나는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7, 58
巳	53년생 자발적인 자제가 상승 효과를 보일 것이다. 65년생 내색할 단계가 아니다. 77년생 오랫동안 진행될 것이니 장기적으로 대비해야겠다. 89년생 국지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것의 관심이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20, 14	亥	47년생 예견된단던 당연히 피하고 봐야 하느니라. 59년생 인정받거나 이루어지는 형국이다. 71년생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에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상책이다. 83년생 엄격한 기준이 없다면 부실함을 면치 못한다. 행운의 숫자 : 73, 0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